

도시공원 예술로 공공 미술 사업:  
경남 함양 상림공원  
(라운드 프로젝트 ROUND PROJECT)

# RO UND PROJE CT

2013.07.17. - 08.11.

Opening Reception  
7.17.(wed) 18:00

## 참여 작가

장민승+정재일, 정소영, 란디 앤 카트린

## 기획

홍보라 (갤러리팩토리 디렉터)

## 전시 장소

갤러리팩토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5)

Gallery FACTORY  
Jahamun-ro 10-gil, 15, Jongno-gu  
Seoul, Korea 110-004  
+82 2 733 4983  
galleryfactory@gmail.com  
www.factory483.org



# ROUND PROJECT

## ROUND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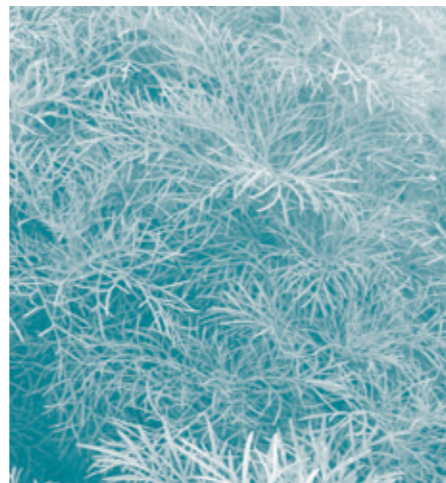
2013. 7.17. - 8.11.

'라운드 프로젝트'는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한 상림공원 내 수직적으로 구축된 상림숲과 연꽃공원(연지공원), 그리고 최근 조성된 고운광장을 음악과 영상 및 조각 작품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람자의 움직임과 공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공공 미술 프로젝트이다.

'라운드 프로젝트'는 함양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림공원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요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연결하여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상림공원의 중심에는 숲이 있다. 팩토리는 그 명명백백한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숲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설치하고 함양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갤러리 팩토리에 서 진행될 <함양 상림공원: 라운드 프로젝트 ROUND PROJECT>는 일종의 프리뷰 성격의 전시이다.

이 전시를 통해 본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프로젝트의 기획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시에서는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민승+정재일과 정소영의 인터뷰 내용과 작업 과정을 별도의 영상 작업으로 소개하고, 또한 팩토리의 오랜 친구인 덴마크 듀오 작가 란디 & 카트린의 공공 조형물인 타워맨의 함양 여정을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재구성해 보여 준다.



### 숲 + 빛 빛의 정원 Light Garden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상림숲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고운광장은 주변 환경과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띄지만, 상림숲과 연지공원을 마주 보고 마치 다른 시간 속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처럼 상반된 거울 이미지에 정소영 작가는 '빛'이라는 요소를 적극 끌어들이고 고운광장에 솔방울, 나뭇가지, 별과 하늘이라는 자연의 요소를 재현한 일련의 조각 작품을 만든다. 빛방울, 별 벤치, 하늘 만화경과 방울나무라는 이름의 조형물과 함께 고운공원은 또 다른 형태의 숲으로 탄생한다.

### 숲 + 음악 스피어스 상림 - 소리산책 Spheres Sanglim - Sound Walk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상림숲 안에는 장민승+정재일 작가의 '스피어스 상림-소리 산책' 프로젝트가 있다. 이들은 상림숲의 사계를 모티프로 창작 곡을 만들고, 함양 지역의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와 협업해 이 곡을 상림공원 안에서 연주하고 영상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과 영상은 라운드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며, '소리 산책'이라는 부제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숲을 걸으며 특정 장소에서 연주된 곡들을 방문객들이 직접 재생하고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눈으로 보이는 숲의 이미지를 넘어 또 다른 층위의 공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 숲 + 사람 타워맨 Towerman

건축물을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만든 공공 조형물인 타워맨은 덴마크의 듀오 작가 란디 & 카트린의 작업으로, 2012년 3월 이후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마치고 비로소 함양 상림공원에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목재로 만들어진 타워맨은 상림숲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을 맞이함과 동시에 본 프로젝트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또한 관객들이 상림공원에서 시청각적으로 경험하게 될 음악과 조각품 사이의 간극을 잇고, 더 나아가 숲과 사람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